

자자(自恣)는 공덕의 키질

- 백중(白衆),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명절 -



불자에게 백중(百衆)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다.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부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일반인은 이날을 백가지 햇곡식과 과일로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날이라 인식하고 있다. 백중(百種)이라는 말은 백가지 곡식과 과일이 나오는 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백중(白: 흰 '백' 踵: 발꿈치 '중')이라고도 한다. 그간의 힘든 농사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냇가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발뒤꿈치를 제대로 씻어본다는 의미라 한다. 불자들은 이날을 백중(白: 고탄 '백' 衆: 무리 '중')이라 부른다. '대중에게 고탄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며, 이른바 하안거(夏安居)를 마치는 날이다. 대중과 90일을 함께 지내자니 수행자에 앞서 인간이기에 고뇌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저지른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속에 먹은 마음이 있으면 모두 털어놓는 그런 날이다. 방아를 찧고 나서 키질을 해야 순수한 알곡만 남는다는 그런 이치다.

즉, 자자(自恣)*를 하고 나면 순백의 에너지인 선근공덕(善根功德)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란분경(盂蘭盆經)』에서는 이날을 '불환희일 승자자일(佛歡喜日 僧自恣日: 부처님께서 환희 하시는 날이고, 중승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날)'이라 불렀다.

'백중'이 조상에 대한 감사함과 효성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날이라면, '백중'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안거 동안 정진으로 형성된 순백의 에너지인 공덕을 부모님께 베풀어주실 것을 스님들께 부탁드리는 날이다. 이로써 선망부모는 이고득락(離苦得樂: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림)하시고 현세의 부모는 만수무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답게 이끌어주신 스승님들께도 이와 같은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날인 것이다. 스님들에게도 좋은 날이다. 자신들의 공덕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곧 자신의 다생부모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타(利他)라는 새로운 공덕을 짓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이 명절로 자리 잡기까지는 목련존자의 효성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매년 백중이 임박하면 끝없이 리바이벌(revival)되며 우리에게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자(自恣):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의식. 하안거의 마지막 날(음력

7월 15일),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 서로 보고(見), 듣고(聞), 의심(疑)이 나는 3사(三事)에 대하여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의 죄과(罪過)를 자유롭게 진술하며,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를 사과하여 신심을 모두 결백하게 하는 의식.

다생부모 십종대은(多生父母 十種大恩)

불가에서 염불로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를 열 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사부대중들은 현재의 인연만을 중시하여 과거생 자신의 부모였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하고 야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과거생의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생 부모의 은혜를 알거나 하는지 십종대은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되새겨 보자.

- 懷耽守護恩(회담수호은) 뱃속에 있을 제 목숨 걸고 보호해 주신 은혜
- 臨產受苦恩(임산수고은) 낳으실 제 산고의 고통을 참으신 은혜
- 生子忘憂恩(생자망우은) 나를 낳으시고 근심을 잊고 안심하신 은혜
- 咽苦吐甘恩(인고토감은) 쓴것은 삼키시고 단것은 내어 먹여주신 은혜
- 廻乾就濕恩(회간취습은) 마른자리 날 누이시고 젖은 자리 찾아 누우신 은혜
- 乳哺養育恩(유포양육은)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 洗濯不淨恩(세탁부정은) 갖은 더러운 것 마다알고 씻어주신 은혜
- 遠行憶念恩(원행억념은) 집 떠나 먼 길 나서면 올 때까지 걱정하여주신 은혜
- 爲造惡業恩(위조악업은) 자식을 위해 악한 죄업도 마다알고 짓는 은혜
- 究竟憐愍恩(구경연민은) 어른이 되어 장성하여도 언제나 가엾어하신 은혜

이렇듯 부모의 삶은 자식을 향한 지극한 일념이며, 자식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평생토록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백중을 맞이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모님의 지극한 마음에 효도를 담은 기도를 올려 봄은 어떨까.

우란분절 백중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백중(百衆)은 부처님 당시부터 봉행되어 내려오는 불교의 명절입니다. 목련존자께서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효성심 하나로 구제하신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백중은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과 더불어 불교 5대 명절로 여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본사에서 백중맞이를 봉행하오니 선망부모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무무 동참하시어 부처님과의 선근인연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9월 2일(음력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봉원사

- 문 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 ※ 음력 7월 14일에는 개인으로 백중맞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치성광여래를 모시고 액란소멸과 무병장수를 기원

- 한민족 민간 설화와 도교적 색채가 어우러진 칠석불공 -



1. 민간설화속의 칠월칠석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결혼하였다. 그들은 결혼하고도 놀고먹으며 게으름을 피우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태우면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석날에 이들을 만나게 해 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었으니 그것이 곧 오작교(烏鵲橋)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입을 만나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진다. 그래서 칠석날 세상에는 까치와 까마귀는 한 마리도 없으며, 어찌다 있는 것은 병이 들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또 까마귀와 까치는 이날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지게 된다고 한다. 칠석날 전후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일도 많은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 준비를 하느라고 먼지 앉은 수레를 씻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물이 인간 세상에서는 비가 되어 내리므로, 이 비를 '수레 씻는 비' 즉 '세차우(洗車雨)' 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여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한다.

2. 칠월칠석의 불교적 의미

우리 옛 조상들은 칠석이 되면 "낮과 밤이 순리대로 교차하고 물과 불이 적당하게 배포됨은 물론 재보와 지혜를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달라"는 기원을 하곤 했다.

이런 의미에서 불자들은 해마다 칠석날이 되면 사찰에서 정성껏 칠성기도를 올린다.

사실 칠석은 민간신앙으로 본래 도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도교는 중국에 큰 영향을 끼쳐 온 민간종교로, 무위자연설을 주지(主旨)로 하는 노장철학에 음양오행설과 신선사상이 결합되어 불로장생, 자손의 번영, 명예와 재산을 기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던 민간신앙이다. 이것이 불교신앙과 결합되어 사찰에서는 치성광여래를 모신 칠성각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때문에 도교의 일곱성군과 불교의 일곱여래는 이름만 다르지 모습은 같은 분이다. 즉 도교에서는 칠성님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았다고 하여 북두칠성을 성군으로 모시고 있는데 대해, 불교에서는 치성광여래님을 모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칠성신앙은 무조건 도교의 북두칠성신을 그대로 받드는 것이 아니다. 칠성각에 보면 삼존불과 칠여래, 도교의 칠성신등이 함께 봉안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가 토속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칠성각인 것이다.

즉 이 같은 포용은 불교의 폭넓은 자비 사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포교를 위한 무한한 방편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력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깊이 신봉하게 되었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민중의 바람을 수용하여 더 구체화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용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칠성신앙의 대상은 북두칠성이 아니라 칠여래의 화현으로 나타난 칠성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가에서 칠석날에 칠석재를 마련하고 칠석불공을 하는 것은 자비로 나누시는 치성광여래에게 중생의 소원성취를 들어 주기를 기원하고, 마침내는 중생을 성불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원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불자들은 칠석에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영을 위한 기도와 함께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여 잘못을 깨달아 앞으로 한결음씩 나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수명장수(壽命長壽) 기원, 칠석 불공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신도님 댁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칠석 불공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자손의 부귀영화와 더불어 무병장수와 소원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8월 25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매시간 불공을 모십니다)
- 장 소 : 봉원사
- 문 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봉원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금번 2020년 8월 25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칠석불공 행사와

9월 2일(음 7월 15일) 수요일 우란분절 백중 당일에

삼천불전 외부에 거리를 두고 의자를 배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염 방지와 신도님들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함이오니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권수



권말



목서자료



수인도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시의 사전 조사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2020년 6월 4일 서울시보(제3588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 공고되었다.

이번에 지정 예정된 문화재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奉元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 一括)』 1건 33구와 복장물 18건 43점, 1책 등이다.

이번 호에는 1470 ~ 1488년에 조성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를 소개한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륙재(水陸齋 :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올리는 재)의 제반 의식 절차를 요약하여 수륙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의식의 요점만을 간추려 정리한 불교의식집의 한 종류이다. 봉원사에 소장된 판본은 부처님의 배 속에서 나온 불복장(佛腹藏)으로 왕실의 지원으로 초간된 견성 사본과 비슷한 시기에 판을 새로이 하여 펴낸 것(改版)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학계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판본이다.

수륙재 의식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시작되어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선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고려 광종이 수륙재를 970년에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한 수륙도량이 그 최초일 것이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오다가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 태조는 진관사를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여는 사찰로 지정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다. 수륙재를 폐지하자는 상소도 있었지만 중종 10년(1515)경까지 큰 변동없이 수륙재는 지속되었다. 비록 중종 때 유생들의 강한 상소에 의해 국가적 행사로서의 수륙재는 금지되었지만 민간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봉원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그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27.5cm이며, 목판본 1책이다. 장책하기 전의 광곽(匡郭)* 1장의 크기는 대략 20.3 × 24.5cm로, 두 번 꺾어

접어서 책을 만들었다. 광곽의 행과 글자 수는 6행 15자이며 읽기의 편함을 주기 위해 권점(圈點)이 찍혀 있는데 이는 인쇄한 뒤에 찍은 것이다. 본문 내용은 제책 기준으로 앞부분의 목판 51장과 필사 16장이 뒷부분에 합철되어 있는데 훗날 새로이 추가한 것이며, 총 67장으로 묶여 있다.

봉원사 소장본은 표지가 탈거되어 있고 복장본인 관계로 책이 심하게 구겨져 있으며 훼손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면은 대체적으로 살아 있으며, 시주질(施主秩)과 간행 사실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15자 본(本)의 다른 현전본인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법흥사본의 선행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법흥사 본은 1488년에 평안도 순안의 법흥사에서 개판되었기 때문에 봉원사 복장본은 늦어도 성종 재위 기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여 종의 판본 중에 이와 유사한 판본이 법흥사(1488년刊)와 자비령사(1490년刊) 등에서 개판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일한 판본은 아니다. 따라서 봉원사 복장본은 이들 판본보다 앞서 간행한 이본(異本 : 같은 책으로 나온 내용이 다소 다른 것) 계통의 원간본(原刊本 : 맨 처음 간행된 책)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동일본이 소개된 바 없는 유일본으로 판단된다.

봉원사에 소장된 복장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1470년 왕실본이 간행된 이후 조선 성종 초기에 새로운 형식으로 간행된 이본 계통의 원간본으로, 견성사에서 간행된 초간본이 보물 제110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1483년에 간행된 중대사본과 1571년에 간행된 무위사본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는 매우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봉원사본은 동일본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 국내 유일의 희귀본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광곽(匡郭) : 서책 책장의 사주(四周)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
**시주질(施主秩) : 불사(시주) 동참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

2021학년도 대학입시 합격발원 백일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예년과 같이 대학입시생을 위한 합격발원기도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 속에 최선의 결과 기원합니다.

안 내

- 입 재 일 : 2020년 8월 26일(음력 7월 8일) 수요일
- 기도 시간 :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2회)
- 장 소 : 봉원사 대웅전
- 기도 법 사 : 정명 스님
- 기도 동참금 : 10만 원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기도기간 중 백일기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신청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불교 용어(2)



대웅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불교에서 전래되어 온 말이 대단히 많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도 불교에서 나왔나 싶은 용어들을 소개한다.

주인공(主人公)

불교에서의 '주인공'은 득도(得道)한 인물(人物)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인공(主人翁)이라고도 하며,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망상(煩惱妄想)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自我), 즉 무아(無我)를 누리는 자아를 일컫는 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소설, 연극, 영화 등의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 또는 어떤 일이나 분야, 단체 등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한다.

지식(知識)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지식은 '벗'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아는 사람, 즉 내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지도하면 선우(善友), 선지식(善知識)이라 하고, 나쁜 사람이면 악우(惡友), 악지식(惡知識)이라 한다. 지식이란 말은 흔히 선지식이란 뜻으로 통용되며, '불법(佛法)을 갈구하는 착하디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찰나[刹那]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지극히 짧은 순간의 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의 최소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1찰나는 시간의 단위로 따지면 대략 75분의 1초(약 0.013초)에 해당하며 손가락을 '탁'하고 튕기는(彈指 : 탄지) 사이에 65찰나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1찰나마다 생겼다가 멀하고, 멀했다가 다시 생기면서 계속되어 나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찰나생멸(刹那生滅), 찰나무상(刹那無常)이라고 한다.

출세(出世)

흔히 우리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을 출세라고 한다. 이 낱말은 불교에서는 아주 다른 뜻으로 쓰인다. 불가(佛家)에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 세상의 속연(俗緣)을 벗어나 불도수행(佛道修行)에 전념(專念)하는 것을 뜻한다. 출가(出家)와 같은 뜻이다. 둘째, 불보살(佛菩薩)이 속세(俗世)에 나가 중생을 교화(教化)하는 것을 뜻한다.

사물(四物)놀이

사물이란 원래 사찰에서 불교의식 때 사용하는 법고(法鼓), 운판(雲板), 목어(木魚), 범종(梵鐘)의 네 악기를 가리키던 말이었다. 법고는 가축이나 짐승을 제도하며, 운판은 공중을 떠도는 영혼, 특히나 새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목어는 물고기들의 영혼을 제도하며,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제도한다. 후대에 민간에서는 이것이 북, 징, 목탁, 태평소로 바뀌었고, 지금은 다북, 장구, 징, 팽과리의 네 가지 민속 타악기로 바뀌어, 일반적으로 사물놀이라고 하면 이 네 종류의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과 그 음악에 의한 놀이를 가리키게 되었다.

명복(冥福)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불교(佛敎) 용어로서, 사람이 죽은 후 염라 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을 명부(冥府 : 저승)라 하는데, 그곳에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킨다. 또한 죽은 사람의 사후 행복을 비는 불사(佛事)를 행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중(大衆)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현대 산업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거나 '부처님께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셨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또한 불교에서는 신도들을 일컬을 때 사부대중(四部大衆)이니 7부중(七部衆)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 사부대중은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 출가하였거나 출가하지 않은 남녀 신도를 이르는 말이고, 대중은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부처님께 귀의한 신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가섭존자와 관련된 대목에 나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하여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세 곳에서 마음을 나누었다(이심전심)는 이야기다.

첫 번째는 연화시중(拈華示衆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의 미소, 두 번째가 분반좌(分半座)로 가섭에게 부처님이 자리를 양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괘시쌍부(擲示雙趺),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법통을 전하였다는 증거의 하나로, 부처님 열반식에 늦게 도착한 가섭이 슬퍼하며 절을 하자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일이다.

● 사보 후원금 ●

- 김 종 호 3만 원(석봉 스님)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 김 장 원 3만 원(현성 스님)
-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6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습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공작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 어느 공작의 태 안에서 알로 있다가 어느 날 그 알을 깨고 나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공작의 날개는 곱고 아름다웠다. 공작은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세 개의 험한 산을 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인 단특검산의 한 언덕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열반에 든 부처님과 그 공덕을 예배했다. 이렇게 공작은 늘 낮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닌 뒤, 저녁이 되면 산꼭대기에 서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했다.

공작은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바라나시 성 부근에 사는 한 사냥꾼이 이리저리 설산을 돌아다니다가 단특검산에 사는 공작을 보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금빛 공작이 설산에 산다는 말을 했다.

그때 케마라는 바라나시의 왕비가 꿈에 금빛 공작이 설법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님,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금빛 공작의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금빛 공작이 있는 곳을 물었다. 대신들은 바라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바라문에게 “정말 금빛 공작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바라문은 그런 공작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사냥꾼이 알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모든 사냥꾼들을 모아 놓고 다시 금빛 공작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한 사냥꾼의 아들이 대답했다.

“대왕님, 단특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에 금빛 공작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죽이지 말고 산 채로 잡아 오나라.”

왕은 사냥꾼에게 분부 했다.

사냥꾼은 공작이 먹이를 찾는 곳에 가서 그물을 쳤다. 그러나 그 공작이 밧을 밟는 곳에서는 그물이 밧에 걸리지 않았다.

사냥꾼은 공작을 잡지 못한 채 7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케마 왕비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왕은 공작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몹시 화를 내었다.

“설산 지방에 단특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금빛 공작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왕은 그런 글을 금판에 새겨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

왕이 죽어 다른 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그 금판을 보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되려고 사냥꾼 한 사람을 단특검산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 사냥꾼도 거기까지 가긴 갔으나 공작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6대 왕이 계속 죽은 뒤에 7대 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도 사냥꾼을 설산으

로 보냈다. 그 사냥꾼은 공작이 밧을 밟는 곳에서는 그물이 조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문으로 몸을 단속하고 먹이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곧 산 근처에 내려가 암공작 한 마리를 붙잡았다. 그는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손가락을 툭기며 노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공작을 길들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아침 일찍 금빛 공작이 주문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전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친 뒤 암공작을 울게 했다.

암공작의 울음은 아름다웠다. 금빛 공작은 암공작 특유의 노랫소리를 듣고 애육에 얽매어 주문으로 자신의 몸을 단속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사냥꾼은 금빛 공작을 잡아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금빛 공작의 화려한 모습에 사로잡혀 자리에 앉게 했다.

공작이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대왕님, 왜 나를 잡아 왔습니까?”

“네 고기를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너를 잡아 오게 했다.”

금빛 공작을 쳐다보는 왕의 얼굴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대왕님, 당신은 내 고기를 잡수시고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겠지만, 나는 죽지 않습니까?”

“물론 너는 죽지.”

“그러면 나는 죽는데, 내 고기만 먹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금빛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고기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왕님, 나는 아무 까닭도 없이 금빛 몸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나는 이 나라에서 전륜성왕이 되어 오계(五戒)*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했

습니다. 나는 죽어 삼십삼천에 나서 생명이 있는 동안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는 다른 데서 지은 악업의 과보로 지금 공작의 몸이 되었지만, 예전에 지킨 오계의 위력으로 지금 금빛이 된 것입니다.”

금빛 공작은 전생의 과정을 진실되게 말했다. 그러나 왕은 금빛 공작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너는 과거에 전륜성왕이 되어 계율을 지켜 그 과보로 금빛이 되었다고 하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무슨 증거라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대왕님.”

“그것이 무엇인가?”

“대왕님, 내가 전륜성왕으로 있을 때 나는 보배 구슬로 만든 수레를 타고 공중을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그 수레를 왕원(王園)의 연못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파내십시오. 그것이 증거입니다.”

왕은 금빛 공작의 말을 따라 연못의 물을 말려 수레를 파내었다. 공작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대왕님, 불멸의 큰 열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유위(有爲)의 범으로서, 그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요, 덧없는 것이며, 모두 없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공작은 왕을 위해 설법을 한 뒤 오계를 지키게 했다.

왕은 신심으로 공작에게 큰 경의를 표했다.

공작은 며칠 동안 왕과 함께 있다가 “대왕님,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하고 훈계한 뒤 공중에 올라 단특검산으로 되돌아갔다.

*오계(五戒) : 불교에 귀의하는 재가(在家) 남녀가 받을 5종의 계율. 불교도 전체에 통하여 지킬 계율.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하지 말라. (5) 술 마시지 말라.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이달의 시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줌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현/시인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으로 데뷔, 잘 알려진 시로는 「너에게 묻는다」, 「스며드는 것」, 「연어」, 「반쯤 깨진 연탄」 등이 있다.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보존처리 완료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3호 -



유형문화재 제363호로 지정되었다. 전체 크기는 623×395cm, 화면은 600×374cm, 무게는 126.5kg으로 면 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이 불화는 1901년에 경운궁에 살던 고종 태황제의 후궁인 엄비가 돌아가신 부모와 외가 조상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 시주하여 봉원사에 이 괘불도를 봉안하였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돋보이는 문화재이다.

괘불도에는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을 화면 가득히 묘사되어 있고, 아래에는 가섭존자, 아난존자, 그리고 하단에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배치하였다.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한 이 괘불도는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수화승 한봉당응작 등 12명의 화승이 제작에 참여했다.

2019년 7월에 시작된 보존처리 작업은 1년이 넘는 오랜 작업을 거쳐 마무리 되었으며, 드디어 2020년 9월에 보존처리 완료된 아미타괘불도는 봉원사로 돌아온다. 내년부터는 봉원사의 주요 행사에서 새롭게 보존, 처리작업을 마친 아미타괘불도를 볼 수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3호인 봉원사 '아미타괘불도'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처리중이다. 모두 21단계의 보존처리 과정 중 20단계인 괘불도의 보존처리 작업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마지막 단계 작업인 괘불함 수리를 우리나라 전통솜칠방식을 적용해 진행중이다.

봉원사의 아미타괘불도의 제작연대는 1901년으로, 2014년 7월 3일 서울시

한가위 다례 및 합동 다례 안내

우리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봉원사에서는 한가위 개별 다례(茶禮) 및 합동 다례를 봉행합니다. 한민족의 미풍양속인 차례는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는 뜻의 다례에서 유래하며, 조상의 극락왕생과 후손의 건강 및 화목을 비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풍성한 가을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내

- 날짜 : 2020년 10월 1일(음력 8월 15일) 금요일
- 담당 스님별 다례 봉행(문의 : 각 화주스님 및 종무소)
- '영가들의 쉼터' 합동다례 : 오후 2시 (문의 : 종무소 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5



광심정(廣心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7호 / 경남 함안군

광심정(廣心亭)

학문 수행뿐만 아니라 마음 수양도 열심히 하여 넓은 마음을 갖길 바라며 지은 정자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230번지에 위치한 광심정(廣心亭)은, 조선 선조 2년(1569) 영산군 길곡리에 칩거하고 있던 용성 송씨(龍城宋氏) 문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수학을 목적으로 건립한 정자(亭子)로서, 조선 현종 5년(1664)에 성리학자인 송지일(宋知逸) 선생이 선비들과 더불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호를 따라서 광심정으로 편액(扁額)하였다. 광심(廣心)이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학문 수행뿐만 아니라 마음 수양도 열심히 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정자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칠원(漆原) 북쪽 자모산 기슭, 낙동강변의 절벽 위에 자리잡고 있다.

임진왜란(1592) 때 파손되어 여러 번 고쳐 지었다. 1794년에 중수, 1949년 경에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1995년 5월 2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광심정은 창녕 함안보에서 낙동강 하류 방향으로 70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함안의 낙동 강변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조망하기에 좋다. 약간 경사진 땅에 돌로 2층의 낮은 석축을 쌓아 정자를 앉혔다. 물론 석축이 먼저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정자가 먼저, 또는 같이 지어졌는지는 정확한 사료가 없어 알 수 없다. 2단의 석축 상단 위에 얹혀진 정자는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석축의 중앙으로 계단을 내어 정자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계단, 석축, 정자가 잘 어우러져 날렵한 모습을 띠고 있다.

초석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위쪽으로 원형 기둥을 받치고 있으며 기둥의 상부에는 새의 날개 모양의 익공(翼工) 주재로 장식하였다.

건물은 앞면과 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홑처마로,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八作--)의 목조 기와집이다. 정자의 앞쪽은 개방된 마루로 꾸몄고, 그 뒤쪽으로 방을

만들었으며, 정면 전체는 창호문으로 마감되어 있다. 문의 창살은 네모 반자 창살이며, 가운데에는 좁은 창호를 두었고, 왼쪽 문에는 네모 반자 창살에 작은 문을 하나 더 덧대었다. 큰 문을 열지 않을 때에는 이 작은 문을 이용했다고 한다. 정자의 정면부가 모두 창호문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은 이 정자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측면이 정면보다 넓고 한쪽 모서리를 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특수한 건축공법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자 오른쪽의 토담에 얹혀진 기와 지붕의 낮은 담장 밖으로는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대쪽처럼 곧은 선비의 절개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탁 트인 마루에 앉으면 담장 너머로 멀리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보이고 그 주위로 산이 둘러있는 매우 평안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께서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졸업자에게는 내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전수생으로 지정합니다.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 전형일정 : 2020년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물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30명
특별반	각종행사 불교의식	조현성 스님	토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